

‘내우외환’ 시달리는 기아차

‘연비과장’ 벌금·통상임금·엔저 여파 수익성 악화 ‘3중고’

영업익 19% 감소... 원가절감으로 악재 극복해야

기아자동차가 잇단 악재로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4개월여에 걸친 임단협이 타결되지 마자 미국 환경청으로부터 ‘연비과장’에 대한 벌금이 부과된데다, 향후 수조원이 소요될 수 있는 통상임금 관련 선고를 앞두고 있다.

여기에 계속되는 엔저 여파로 수익성도 나빠지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3일(현지시각) 미국 내에서의 ‘연비과장’ 논란과 관련, 1억 달러(한화 1073억6000만원)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환경청(EPA)과 합의했다. 이러한 벌금은 연비 과대 표시 관련 벌금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미 환경청은 현대·기아차가 2012년 11월 미국 소비자들이 자동차 딜러 쇼룸에서 보는 윈도 스티커에 연비를 과장 표기했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조사를 벌여왔다.

현대·기아차는 미국에서 판매된 2011~2013년 모델 가운데 25%인 120만 대 가량의 차사 자동차 연비가 과장되게 표시됐다고 환경청에 시인했다.

기아차의 경우 리오와 쏘울의 연비를 과대 표시했다고 인정했다.

현대·기아차는 미 환경청의 조치와는 별도로 2012년 소비자들이 연비 조작 논란과 관련해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소비자들에게 총 3억95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이미 합의한 바 있다.

현대·기아차의 또 다른 악재는 이달 7일 예정된 통상임금 관련 1심 선고다.

현대차 노조원 23명은 지난해 3월 서울 중앙지법에 현대차 사측을 상대로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소급분을 지급하라는 대표 소송을

냈다.

기아차 노조원의 통상임금 소송은 현대차보다 뒤늦게 이뤄져 아직 선고 일정이 나오지 않았지만 현대차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 현대차 5조원을 비롯, 현대차그룹 전체에서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첫해에만 13조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현대·기아차는 올해 들어 원화 강세 여파로 실적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해외 생산 비중이 44%에 불과해 환율 변동에 취약한 기아자동차는 영업이익이 18.6%나 감소, 2년 만에 최저치인 5666억원으로 떨어졌다.

앞으로의 대외 환경도 현대·기아차에 우호적이지 않다. 엔저를 등에 업은 일본 업체들이 전세계 시장에서 공격적인 판촉 활동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일본 은행의 추가 금융완화 정책으로 엔화 약세는 더욱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는 주식시장에도 반영돼 현대차의 시가총액은 최근 한달만 사이 6조 원 이상 증발해 SK하이닉스에 2위 자리를 내줬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현대·기아차가 통상임금 등의 잇단 악재를 극복하려면 원가절감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들을 압박할 경우 전체 자동차 산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동률기자exian@연합뉴스



화폐 모든 정보 한눈에

4일 체험활동을 위해 광주 서구 치평동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를 찾은 새날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이 화폐 및 경제이야기 강의를 들은 후 화폐전시실을 관람하고 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제공>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935.19 (-17.78)

▼ 금리 2.10% (-0.02)

▼ 코스닥 542.16 (-10.31)

▲ 환율 1076.50원(+3.90)

광주·전남 소비자 물가 동반 상승

광주와 전남지역의 10월 소비자물가가 나란히 상승했다.

4일 호남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10월 중 광주·전남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광주는 1.3%, 전남은 0.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08.96(2005년 기준=100)으로, 전남에 비해서는 0.4% 하락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곱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107.65로 전남보다는 0.6% 하락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0.7%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농축수산물 은 0.2%, 공업제품은 0.4%, 서비스는 1.9%, 집세는 1.0%, 개인서비스는 2.8% 상승했다.

세탁세제가 20.6% 급등한 것을 비롯해 삼푸(16.6), 화장비누(15.6), 치약(14.9), 토마토(14.2), 양파(11.7) 등이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에 배추(-38.7), 시금치(-33.7), 상추(-28.7), 호박(-26.3), 오이(-18.3), 된장(-16.7), 무(-15.0), 감자(-10.3) 등은 크게 감소했다.

전남지역도 소비자물가지수가 108.80으로 전남보다는 0.4% 하락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0.7%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도 108.37로 지난해 10월보다 0.4% 올랐다.

1년 전에 비해 농축수산물은 2.0% 하락한 반면 공업제품은 0.1%, 서비스도 1.4%, 집세는 0.8%, 개인서비스는 1.7%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는 물가가 소폭 올랐다. <김대성기자 bigkim@

금호타이어, 지역민 위한 타이어 무상점검 캠페인

금호타이어가 7일까지 광주·곡성공공외부 주차장에서 ‘지역민을 위한 타이어 무상점검 캠페인’을 시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금호타이어 광주지점 직원 20여명이 참여하며 곡성공공(4~5일)과 광주공공(6~7일) 외부 주차장에서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열리며 고객은 타이어 밸런스 점검과 위치 교환, 마모 상태 및 공기압 점검, 와이퍼 및 워셔액 교체 등 전반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현장 방문을 통해 타이어를 구매할 고객에게는 얼라이언트 무료 점검권과 와이퍼 등의 사은품도 지급한다.

곽정훈 금호타이어 광주지점장은 “지역민의 꾸준한 관심과 사랑 덕분에 금호타이어가 지역의 대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금호타이어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민에게 감사의 마음도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의(062-363-1212).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김장철 앞두고 대형마트에 1000원짜리 배추 등장

가격 폭락 신음하는 농촌돕기

롯데슈퍼, 1포기 1000원 판매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과잉 생산으로 가격 폭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형마트에도 1포기에 1000원짜리 배추가 등장했다.

롯데슈퍼는 오는 5일부터 김장행사를 진행하며 해남, 고창, 홍성 등에서 재배한 배추 50만 포기를 1포기당 1000원에 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

8월 말 정식 때부터 계약 재배하고 매입 물량을 지난해보다 10% 가량 늘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다.

대형마트 등에서는 김장에 편리한 절임 배추를 사전예약해 내놓고 있으나 포기당 1000원에 판매하는 것은 올해들어 처음이다. 농협 하나로마트가 6일부터 11일까지 배추 1방(3포기)에 3990원에 판매하고, 홈플러스가 7일부터 1포기에 1300원에 가격을 책정했다. 이마트는 현재 1포기당 1650원이다.

배추 가격은 김장철이 시작되는 11월 상순부터는 1000원 이하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 또 다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마트 역시 본격적인 김장을 시작하는 11월 중순 이후부터 배추 가격인하를 검토 중에 있다.

정부는 가을배추 농사 풍년으로 인한 가격 하락억제를 위해 배추 5만t을 추가로 폐기하기로 했다.

지난 달 15일 자율감축, 저급품 출하 억

제, 산지폐기 등의 방법으로 배추 10만t을 폐기하기로 발표했음에도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자 폐기물량을 15만t으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 또 폐기물량을 늘리는 동시에 폐기 시기도 당초 이번 달 하순에서 상순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다.

한편, 유통업계는 4인 가족 김장비용이 지난해와 비슷하게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했다.

11월 대형마트의 김장재료 판매가격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생강과 간마늘 꿀 등은 올랐고, 무 쪽파 대파 새우젓은 내리는 등 전체적인 김장비용은 지난해 16만1210원에서 올해 16만2360원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파악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중흥건설, 광고신도시 노른자위 땅 C2블럭 낙찰받아

대형건설사 제치고 선정

중흥건설이 국내 대형 건설사를 제치고, 광고신도시 주상복합용지인 C2블럭을 낙찰받았다.

4일 중흥건설에 따르면 지난 3일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광고신도시 용지 입찰에서 대형 건설사 등 총 6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공급 내정자인 5644억원 이상 최고 입찰자로 선정됐다.

C2블록은 아파트 2300여 가구(8만 4479㎡)를 지을 수 있는 주상복합용지로, 중심업무지역 접근성이 뛰어나며 인근에 광고 호수공원이 있어 광고 신도시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평가받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중흥건설 관계자는 “안정적인 자금 유동성을 바탕으로 낙찰이 가능했다”며 “향후 광고 신도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중흥S-클래스’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흥건설은 중흥토건 등 20여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기업신용평가 AA등급의 내실 있는 지역 중견건설사로, 지난 2년간 전국 주택 공급실적 연속 3위를 기록하는 등 전국적으로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 세종시와 내포신도시, 전북혁신도시, 김천혁신도시, 나주혁신도시, 제주 강정지구 등 전국에서 탁월한 분양 성적을 거두며 신도시 및 택지지구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오시는 길

KT서광주지사
서문교회
서구청
신협
MBC

KT서광주지사
돌고개역 1번 출구
양동시장

정운주·김석 치과 (가람빌딩 3층)

정운주·김석 치과

문의처 062)365-7528

진료시간

- 평일 | 오전 9시~오후 7시
- 야간진료(화요일) | 오전 9시~오후 9시
- 토요일 | 오전 9시~오후 4시
- 점심시간 | 오후 12시 30분~오후 2시
- 주일, 공휴일 휴진

개원 일시

2014년 11월 1일(토)

12시~오후 4시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154 (월산동, 가람빌딩 3층, 돌고개역 1번 출구)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 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치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무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동성동 660-29